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 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**2013년 6월 24일(월) 석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원전수출진흥과 채규남 과장(02-2110-3961), 조영제 사무관(02-2110-3959)

## "사우디와의 원자력 협력 본격 개시"

### - 6.24일 한-사우디 장관급 원자력 협력 라운드테이블 개최 -

□ 산업부는 6.24일(월)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야마니 사우디 원자력 재생에너지원(K.A.CARE*)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-사우디 간 원자력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'장관급 라운드테이블 회의'를 개최했다고 밝힘

*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: 사우디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왕 직속 정부기관(원장(장관급) : HE Dr. Hashim A. Yamani)

□ 이날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"그간 한국이 쌓아온 원자력 기술과 노하우가 사우디의 원자력 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"이라며 한-사우디 간 협력 의지를 강조함

○ 또한,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"한국 정부는 금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여,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"이라면서,

- "금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원전의 품질관리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"이라고 밝힘

□ 이후 이어진 발표 세션을 통해 K.A.CARE는 '사우디의 원자력 프로그램'을 소개하였으며, 우리나라는 이를 이어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제안함

○ 우선, 산업부에서 양국 간 원자력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안하고, KAIST에서는 한국의 산업발전에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발표함

○ 이후 한전, 한국원자력협력재단,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각각 ▲원전 국산화(Localization) 방안, ▲인력양성, ▲R&D 분야에서의 협력을 사우디에 제안함

□ 사우디 측은 "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원자력 개발 관련 양국 간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"며 "앞으로도 성공적인 한국의 원자력 개발 경험을 배우기를 희망한다"고 밝혀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함

□ 한편, 사우디는 2032년까지 지속가능하고 안정성 있는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17.6GW(원전 10~16기 수준) 규모의 원전 도입을 추진중이며, 2014년경 최초 원전을 발주할 것으로 전망됨

○ 현재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해 프랑스, 일본, 중국 등이 뛰어들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, 우리나라도 지난 '11.11월 사우디와 원자력 협력협정을 맺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중임

**※ 현장 사진은 행사직후 추가 배포 예정**

## 보도 참고자료 K.A.CARE(원자력재생에너지원) 개요

□ **(개요)** 원자력·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을 수립·집행하는 정부기관으로서 '10.4월 국왕명으로 설립

* K.A.CARE :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

□ **(설립목적) 국왕이 KACARE를 통해** 사우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**직접 관리**하며 독자 원전건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

□ **(주요역할)**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정책수립, 규제기관 설립, R&D 기관 설립, HRD, 투자, 국제협력 등

□ **(최고위원회)** 국왕이 위원장으로, 원자력·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, 재정 및 예산, 행정규제, 외국과의 원자력협정 체결 등 **중요한 정책결정** 수행

* 국왕(위원장), 왕세제(부위원장), Yamani 원장 및 내무부장관, 외교부장관, 고등교육부장관, 석유광물부장관, 재무부장관, 산업부장관, 수전력부장관, 농업부장관, 복지부장관, 과학기술연구원장, 국무부 위원 등 14명으로 구성

□ **(추진정책)** K.A.CARE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통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표

* 사우디는 높은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고,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여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중

○ 에너지믹스(2032년) : 원자력 17.6GW(원전 10~16기), 태양광 41GW, 화석연료 60GW, 풍력 9GW, 폐기물 3GW, 지열 1GW

* 최대 전력수요 전망 : (2012) 45GW → (2020) 70GW → (2030) 120GW
* 현재 전력생산(설비용량 51GW)은 석유(62%)와 가스(38%)에 의존 중

○ 1,000㎿급 이상의 상용원전 뿐만 아니라 중소형원전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, 장기적으로 자체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 중